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소중한 수자원의 이용

댐을 만들어 물을 저장하게 했으며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이용하게 했다. 물의 이용을 위해 용수로를 만들고 정수장을 설치해 물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산림녹화(山林綠化)로 수자원을 보호하려고 사방공사 사업을 추진해 벌거숭이 산이 없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에 22조 원을 들여 16개의 댐을 만들어 물을 저장하고 이용하게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물의 이용에 창의력이 없어 설치된 댐을 해체하자는 논의를 했었다. 하늘에서 빗물로 내려온 수자원은 이용하지 않으면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정치지도자는 미래를 보고 수자원의 이용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겨울부터 이어진 50년 만의 가뭄으로 전 국토가 메마르고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농도인 전남도 예외가 아니며, 물 부족으로 농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역대 통치자가 수자원 보호와 이용에 힘썼기에 모내기를 적기에 이양(移秧)했으며 용수로를 통해 저장된 물을 공급을 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남 강수량은 3.4mm로 평년(1991년~2020년) 5월 강수량 111.7mm의 3% 수준이다. 지난 1973년 이자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영산강 한강 낙동강 금강의 4대강 유역에

도 247.4mm로 평년 505.8mm에 비해 50%도 안 된다. 5년 전인 지난 2017년 6월에도 100년 만의 가뭄으로 농가의 피해가 컸는데 또다시 5년 만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다.

언론에서는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과 가뭄 극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바다를 드러낸 저수지나 하천 상대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이제는 50년 만의 가뭄, 100년 만의 가뭄 또는 팔십 평생 처음 보는 가뭄 등 이러한 표현이 일상화되는 듯하다. 기후 변화로 인해 앞으로 가뭄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반복되는 가뭄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기에 수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최선의 대책이다.

영산강 상류에는 장성댐 나주댐 광주댐 담양댐의 4개 댐이 있어 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승촌보에는 600만 톤 죽산보에는 1천600만 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어 이용하고 있다.

가뭄에도 영산강에 인접한 전남 서남해안 지역인 함평, 무안, 영암, 해남, 강진군 일부 지역은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영산강 하구에 위치한 영산호가 있기 때문이다. 영산호는 지난 1981년 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사업(2단계)으로 설치된 담수호로서 2억 5천300만 톤의 영산강 물을 저장하고 있다. 또한 영산호는 폭 150m, 길이 5

천620m의 연결수로로 통해 지난 1993년에 완공된 영암호(2억4천 500만 톤)와 연결돼 있으며, 영암호도 최대폭 70m, 길이 9천320m의 수로로 지난 1996년에 완공한 금호호(1억3천300만 톤)와 연결돼 있다.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의 3개의 담수호는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호수로써 총저수량은 6억 3천100만 톤에 달한다. 올해 같은 극심한 가뭄에도 농가나 대불공단에 물 걱정 없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영산강과 영암호, 금호호 등이 있기 가능하다.

영산강을 따라 내려오는 강물을 승촌보 죽산보와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에서 저류해 급변과 같이 가뭄으로 대지가 마르고 농작물이 자라지 못해 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을 때, 생명의 강인 영산강은 전남 서남해안의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생명의 싹을 틔움으로써 살아있는 강임을 증명하고 있다.

물 부족국에서 사는 우리는 물을 아껴쓰고 소중한 수자원을 잘 보호해서 저장하고 양수장과 용수로를 만들어 저장된 물이 농업용수로 안정적인 공급이 되게 걱정 없이 영농할 수 있는 선진 농업국을 만들어야 하며, 저장된 물은 창의적으로 관리해 녹조현상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수자원(水資源)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물을 모아 이용하는 자원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우리 역사상 수자원 보호를 위해 치산치수(治山治水) 사업을 창의적으로 잘한 통치자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영산강 한강 낙동강 금강의 4대강 유역에

독자기고

건설현장 화재는 막을 수 있는 인재이다

김경선
담양소방서 담양119안전센터

화재는 탈 물질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용접작업 시 주변에 탈 물질을 없애고,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고 안전거리(15m이상)가 확보된 장소에 보관하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불꽃받이 나 방염시트로 주변 가연물과 철저히 분리시킨다면 충분한 효과를 보리라 생각된다.

화재는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작업장 주위에는 반드시 소화기와 물통, 건조사, 불연성포대 등 소화장비를 마련하고 작업을 실시하자. 화재 감지인을 배치해 작업장 주변을 감시하거나 유사시에 소화기·마른 모래·소방시설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초기 진화가 어렵다면 무조건 대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꺼진 불도 다시보자. 작업이 끝난 후 1시간 동안 날아간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 없이 타는 일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수 있다면 환풍기 등을 이용해 반드시 배출하고 재작업해야 한다.

부주의를 주의함으로써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그동안 무심코 했던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노력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이어가는 모든 이에게 무사고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칠까 한다.

최근 5년(17.~'21) 전국 공사장 화재 4,181건, 인명피해 376명(사망64, 부상 312). 그 중 용접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2,059건, 인명피해 143명(사망8, 부상 135)으로 공사장 화재 중 용접으로 인한 화재가 무려 약 49%에 달한다.

화재사태를 보면 대형 아파트 공사장에서 용접작업으로 인해 주변 스티로폼 등에 불티가 튀는 경우, 상가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작업 중 건축자재에 튀는 경우, 배관 용접작업 중 보온재에 불티가 튀는 경우 등이 있다. 용접불티는 중심부 온도가 1000~2000℃에 이르기 때문에 주위의 먼지나 종이에 착화되기 쉬워 그 어떤 점화원보다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주의가 원인이라서 필자는 더욱 안타깝다. 가연물의 종류와 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단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작업 중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건축 공사장 화재 중 용접으로 인한 화재를 막는 법을 알아보자.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부사장 기백관	등록번호 광주가69(일간)
취재본부장 서용운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